보도시점 2024. 07. 03.(수) 배포 2024. 07. 03.(수) 17:30

'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

- 56세 대상 검진, 검사결과 항체 양성자는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지원 예정
- C형 간염 예방백신 없으나 완치제 있어 조기 발견·치료 시 퇴치 가능

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은 7월 3일 개최된 **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**(위원장 복지부 2차관)에서 **국가건강검진**에 **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**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.

이번 결정에 따라 **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**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**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.**

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(HCV)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,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**만성 바이러스 간염, 간경변증, 간부전, 간암** 등 **중증 간질환**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.

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**간암 발생의 약 10%~15%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.** **C형간염 환자의 54%~86%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**되고, **이들 중 15%~51%는 간경변증**으로 **진행**된다.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**연간 1~5%**로,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.

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**치료제*가 있어 완치가 가능**하기 때문에 **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**하고 빨리 **치료를 시작**하는 것이 **중요하다.**

* **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**(DAA,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) **8~12주 경구 투여**로 **98~99% 완치 가능**

그러나, C형간염 **환자의 대부분(약 70%)은 증상이 없어**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**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(Screening test)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**으로 꼽혀왔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주요 국가에서는 **각 나라별 상황을 고려하여 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 일본과 대만, 이집트**는 **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**를 **포함**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, **미국과 호주, 프랑스**는 **고위험군**(주사용 약물 사용자, 수용자 등)**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시행한다.**

우리나라는 2015년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래 **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간염 관리 대책***을 수립하여 이행해 왔다. 이러한 **정책 이행의 성과로** 2020년 이래 **C형간염 환자 수는 감소**하고 있다.

* (보건복지부) 「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('16)」, (질병관리청) 「국가 바이러스 간염 관리 대책('19)」 및 「제1차 바이러스 간염관리 기본계획('23)」



【 그림. 2017~2023년 국내 C형간염 발생 추이 】

* 2017년은 6월부터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되어, 6월 이후 신고건만 포함

다만 환자 수 감소에도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**40~60대**에서 **간암이** 여전히 **주요한 사망 원인***인 상황에서, **높은 사망률과 중증 간질환으로의 질병부담을 낮추고, 간염 퇴치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 필요성이 학계와 전문가**를 **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**되어 왔다.

* 연령별 간암 사망률 : (40대) 2위, (50대) 1위, (60대) 2위(※'22년 사망원인 통계, 통계청)

지난해 3월, 질병관리청은 **「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」***을 **수립**하여, **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.** 이번 C형간염 검사 도입이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**그간 정부와 학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.**

* "바이러스 간염없는 사회, 건강한 국가"를 목표로 능동적 전주기(예방-진단-치료) 간염관리 체계 구축(붙임 참고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건강한 동행,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

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**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**로서 **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** 'C형간염 환자'를 의미*하는 것은 아니므로 **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**하기 위한 **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.**

* ▲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▲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어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음

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**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.**

김윤준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"**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**"하며 "**국민들께서는**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**C형간염으로 진단**받으면 **곧바로 치료를 시작해 주실 것**"을 **당부**하였다.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"그간 대한간학회와 함께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해 **시범사업, 연구용역, 심포지엄 등 다양한 노력**을 해왔고, 이번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**C형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적 기반이 마련되었다"고** 평가하였다.

아울러 "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, 임상진료지침 개발, 연구개발(R&D) **투자 강화, 의료환경내 감염관리 제고, 고위험군 대상 검진 및 치료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적극** 노력해 나가겠다"고 **밝혔다.**

<붙임> 1. 국내 C형간염 현황 및 특성
2. C형간염 검사 체계
3. C형간염 바로알기(Q&A)
4. 2022년 사망원통계
5. 제1차 바이러스 간염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담당 부서 <총괄>	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	양진선	(043-719-7140)
		담당자	사무관	채승훈	(043-719-7194)
			주무관	이아영	(043-719-7159)
			역학조사관	강슬기	(043-719-7148)
담당 부서 <협조>	대한간학회	책임자	의료정책위원회 이사	김인희	(063-250-1677)
		담당자	의료정책위원회 간사	이창훈	(063-250-1533)
			대한간학회 사무국	강소라	(02-703-0051)

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건강한 동행,
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

붙임 1 국내 C형간염 현황 및 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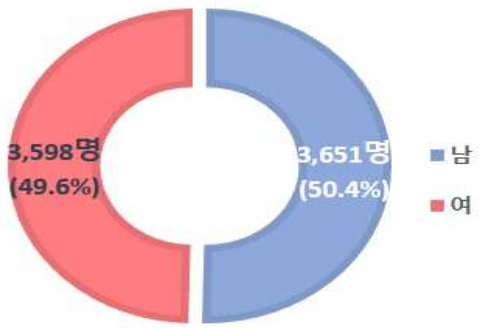
□ **(국내현황)** 2017년 6월부터 전수감시 대상에 포함, 2020년 1,1849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**환자 수 감소 중**

* (출처) 감염병포털(dportal.kdca.g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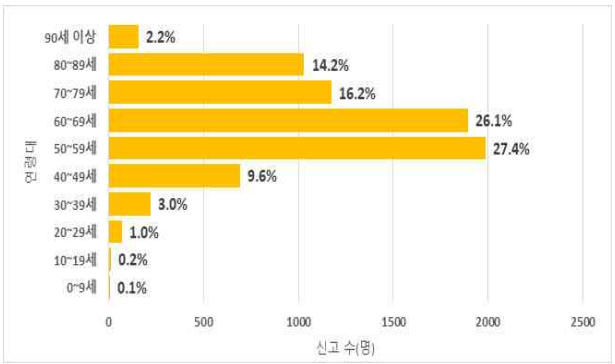


<그림 1. 2017~2023년 국내 C형간염 발생 추이>

* 2017년 6월부터 전수감시체계 전환으로 집계 시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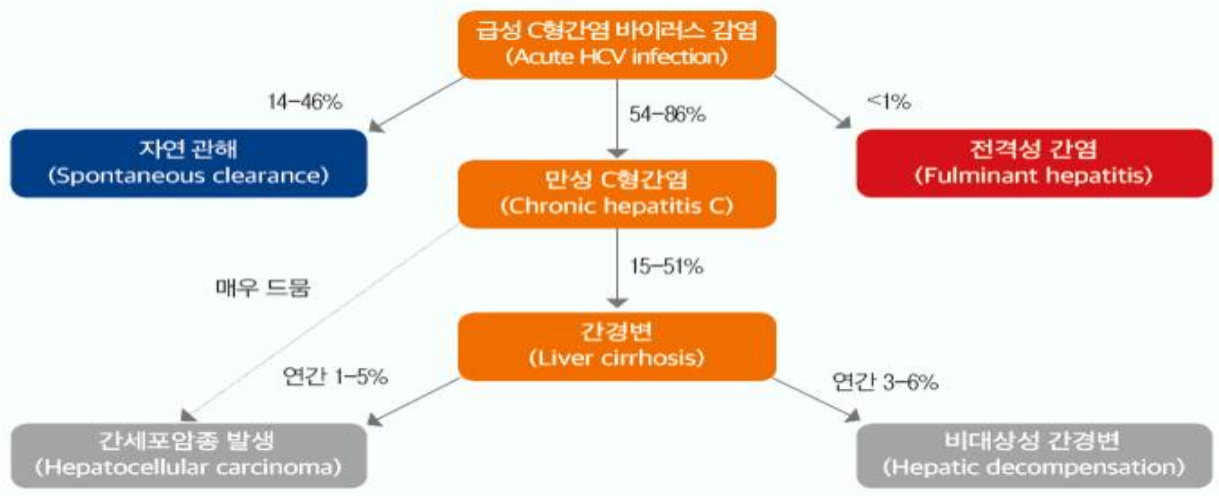
<그림 2. 2023년 성별 발생 현황>



<그림 3. 2023년 연령대별 발생 현황>

□ **C형간염 자연 경과**

* (출처) 간질환백서(대한간학회)

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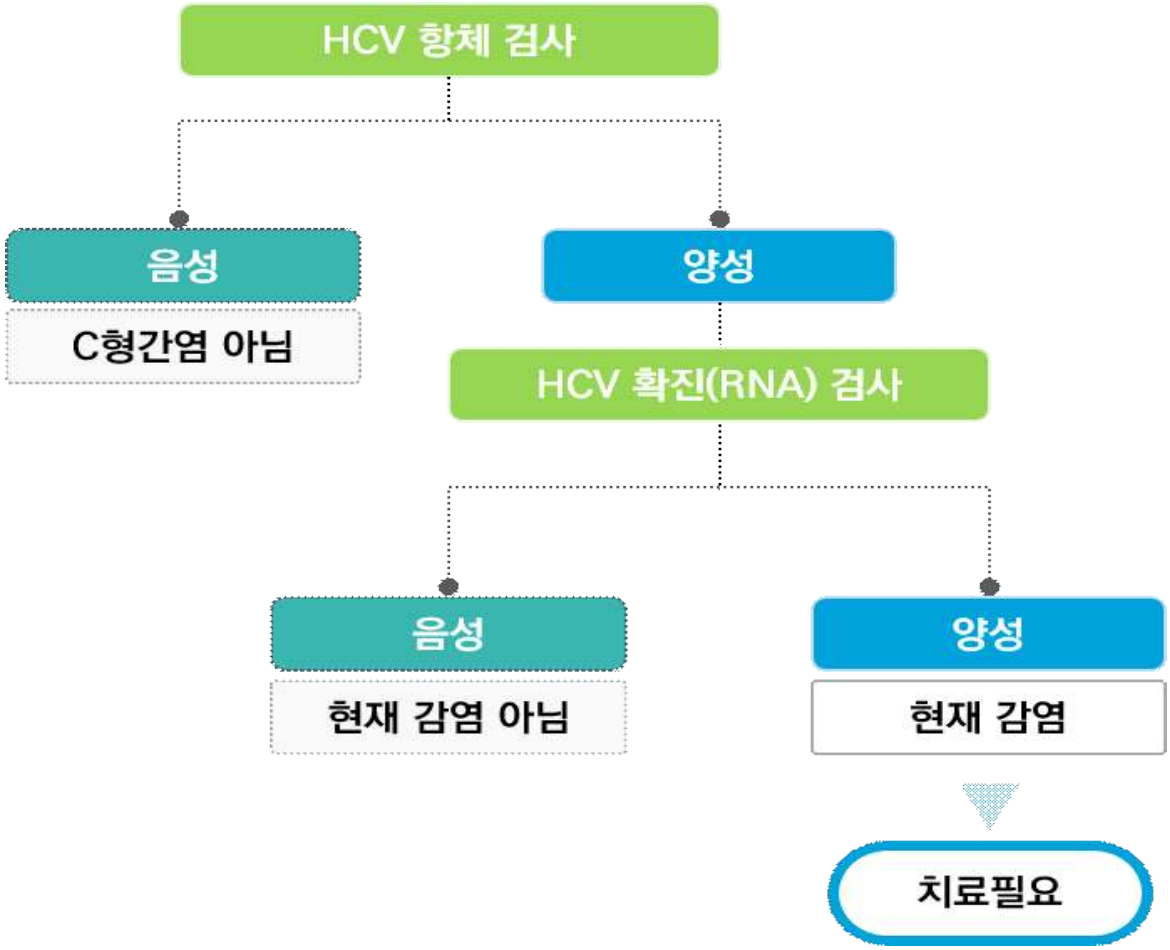
건강한 동행,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

□ C형간염 특성

정 의	· C형간염 바이러스(Hepacivirus hominis) 감염에 의한 급·만성 간질환
질병 분류	· 법정감염병 : 제3급 ·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KCD8) 코드 : B17.1, 18.2
병원체	· Hepacivirus hominis - Flaviviridae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- 8종의 유전형(genotype 1~8)이 있으며 아형은 90개 이상
전파경로	· 주사기 공동 또는 재사용, 수혈, 혈액투석, 성접촉,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전파 ·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음
잠복기	· 2주~6개월 (평균 6~10주)
진단을 위한 검사기준	· 검체(혈액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
증 상	· 급성 C형간염 - 드물게 감기 몸살 증세, 피로, 오심, 식욕부진, 우상복부 불쾌감 등의 비특이적 증상 발생 - 평균 잠복기는 7~8주이며 대부분 무증상 - 전격성 감염은 드묾 · 만성 C형간염 - 대부분 무증상이며 일부 환자에서 피로, 오심, 근육통, 관절통, 체중감소 증상 나타남
치 료	·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(DAA, direct acting antivirals) 경구 투여(8~12주) – Glecaprevir/pibrentasvir – Sofosbuvir/velpatasvir – Elbasvir/grazoprevir – Sofosbuvir – Ledipasvir/sofosbuvir – Sofosbuvir/velpatasvir/vo ·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(DAA)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(98~99%)
관 리	<환자 관리> · C형간염 환자의 별도 격리 불필요 · 혈액 및 체액 노출 예방을 위한 감염예방수칙 준수
	<노출자 관리> ·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 시행 및 치료
예 방	· 현재까지 예방을 위해 개발된 백신은 없음 · 혈액 및 혈액제제 관리, 주사기 안전 사용, 안전한 성관계 등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2 C형간염 검사 체계



※ C형간염 항체검사 음성 : C형간염 환자 아님

※ C형간염 항체검사 양성 : ▸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▸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유되어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확진검사(RNA)를 통해 현재 감염여부 확인이 필요함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건강한 동행,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

붙임 3 C형간염 바로알기(Q&A)

Q1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?

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(*Hepacivirus hominis*, HCV)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. 급성간염의 54~86%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,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Q2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

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.
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,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Q3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?

식사, 포옹,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.

Q4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?

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, 치료제(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,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)의 도입으로 8~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~99%까지 높아졌습니다.

Q5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?

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~80%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,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발열, 피로감, 식욕저하, 어두운 소변, 복통, 구역, 구토, 관절통, 황달 등

Q6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?

네, 그렇습니다.

Q7 감염되면 증상은 얼마만에 나타나나요?

잠복기는 2주~6개월이며, 평균적으로 6~10주 정도입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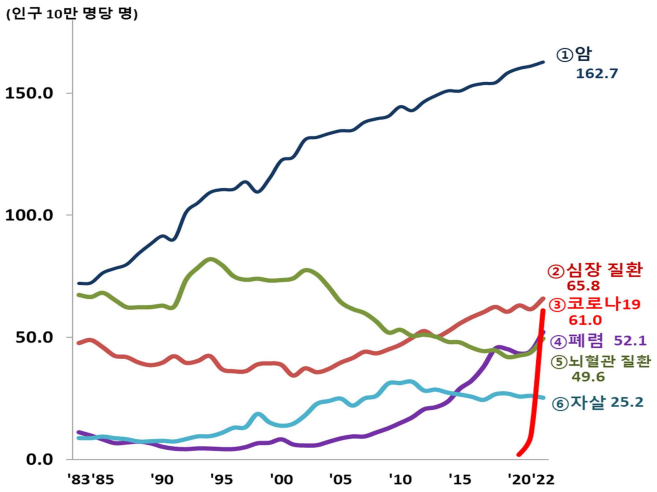
건강한 동행,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

붙임 4 2022년 사망원인 통계(※출처 : 통계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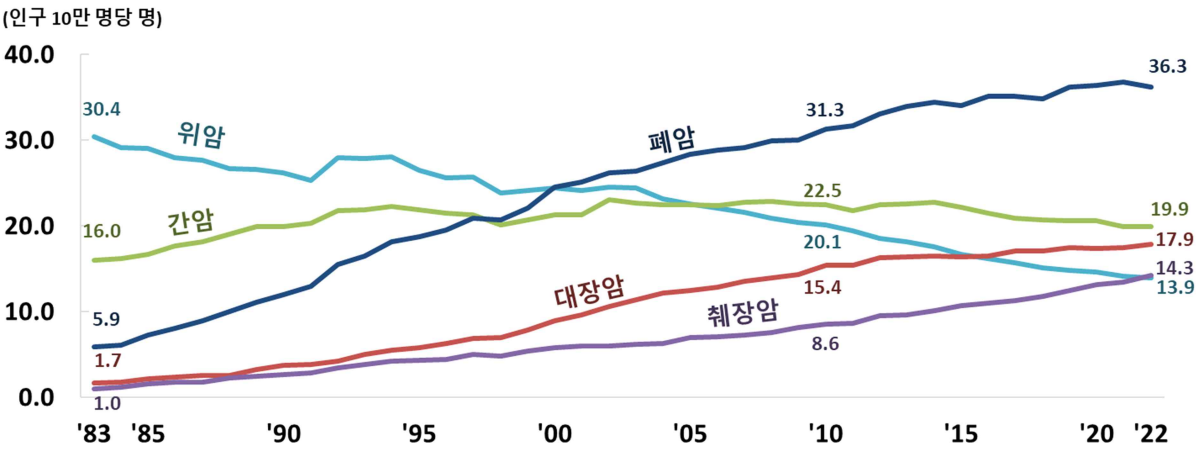
□ 10대 사망원인 추이

(단위: 인구 10만 명당 명)

순위	사망원인	사망률	'21년 순위 대비
1	악성신생물(암)	162.7	-
2	심장 질환	65.8	-
3	코로나19	61.0	⬆(+9)
4	폐렴	52.1	⬇(-1)
5	뇌혈관 질환	49.6	⬇(-1)
6	고의적 자해(자살)	25.2	⬇(-1)
7	알츠하이머병	22.7	-
8	당뇨병	21.8	⬇(-2)
9	고혈압성 질환	15.1	⬆(+1)
10	간 질환	14.7	⬇(-2)



□ 악성 신생물 사망률 추이



□ 악성신생물 연령별 사망률(인구 10만명당)

10대	뇌암(0.6명), 백혈병(0.5명)	50대	**간암(16.9명)**, 폐암(13.6명), 대장암(11.3명)
20대	백혈병(0.9명), 뇌암(0.6명)	60대	폐암(55.4명), **간암(37.2명)**, 대장암(26.4명)
30대	위암(1.5명), 유방암(1.4명), 대장암(1.3명)	70대	폐암(175.0명), **간암(76.0명)**, 췌장암(60.0명)
40대	유방암(5.4명), **간암(5.3명)**, 위암(4.1명)	80세 이상	폐암(301.8명), 대장암(170.7명), **간암(125.1명)**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건강한 동행,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

붙임 5 제1차 바이러스 간염관리 기본계획(23~27) 주요내용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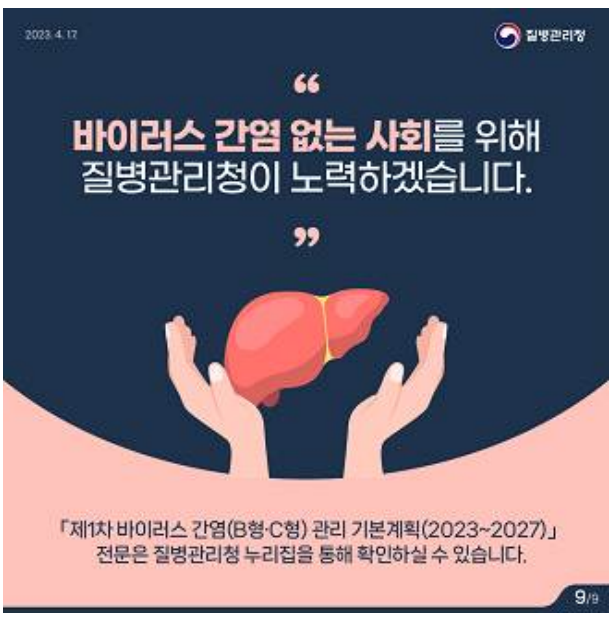
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건강한 동행,
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





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건강한 동행,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